



박지성 '박성화호' 합류 확정

2008 베이징올림픽에서 출전 사상 첫 메달권 진입을 노리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의 박성화 감독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박지성(27·사진)의 대표팀 승선을 기정사실화했다.

박성화 감독은 22일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8월13일)인 온두라스전에 예정된 중국 상하이 상하이스타디움(수용인원 9만명)을 둘러본 뒤 "코칭스태프 자체적으로는 박지성을 와일드카드로 뽑기로 확정했다"면서 "이제 선수 본인 의지와 해당 구단의 결정만 남았을 뿐"이라며 대표팀 합류를 못박았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회장 겸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은 전날 "해당 구단과 대화를 통해 박지성 등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최고의 선수들이 와일드카드로 나와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박성화 감독은 이어 "취약한 포지션을 와일드카드로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예비

올림픽팀 와일드카드 낙점

명단 48명에 포함된)K-리그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만큼 조금 여유를 갖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와일드카드는 출전 연령이 만 23세 이하로 제한된 올림픽에서 나이와 상관 없이 뽑을 수 있는 3명이다. 박 감독은 앞서 미드필더와 왼쪽 수비수, 최전방 공격수를 와일드카드로 낙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감독은 올림픽 본선 첫 관문 통과를 위한 목표 승수를 밝히지 않았지만 조 1위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역대 대회에서 2승(1패)을 하고도 8강에 못 올라간 적이 있다. 1승1무1패를 하더라도 동률이 되면 잠정할 수 없다. 일단 전승을 한다는 목표 모든 경기에 총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4년 전 아테네 대회 때는 한국이 멕시코를 꺾고 그리스, 말리와 비겨 1승2무로 8강

행에 성공했다.

지난 대회 챔피언 아르헨티나와 남미의 강호 브라질과 정면대결을 피해 심리적으로 낫다는 그는 "첫 상대 카메룬과 이탈리아는 무시할 수 없는 강팀"이라면서 "카메룬은 현지에 와 있는 아프리카 팀들로부터 정보를 얻고 있다. 다음 달 톨롱대회에 나가는 이탈리아와 6월12일 일본과 평가전이 예정돼 있는 카메룬 경기를 모두 코칭스태프가 가서 지켜보고 전력을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카메룬과 스타일이 비슷한 팀을 평가전 상대로 협회가 준비하고 있다"며 나이지리아나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강호들과 예비 대결을 벌일 가능성을 암시했다. 그러나 친화도에서 카메룬(8월7일), 이탈리아(10일)전을 치른 뒤 온두라스와 세 번째 경기를 위해 상하이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베이징까지 특급열차로 간 뒤 다시 비행기를 타려면 선수들이 피로가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챔스리그 4강 무대 지성 '무한질주' 기대

맨유, 내일 오전 3시45분 바르셀로나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4강 무대에 다시 도전한다.

맨유는 24일 오전 3시45분(이하 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누캄프에서 FC 바르셀로나(스페인)와 2007-2008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원정 1차전을 치른다. 누캄프는 맨유가 1998-1999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바이에른 뮌헨(독일)에 기적 같은 2-1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 역사적인 '트레블(프리미어리그, FA컵, 챔피언스리그 3관왕)'을 달성한 곳이다.

맨유는 바르셀로나와 맞대결 후 26일 오후 8시45분 첼시와 사실상의 프리미어리그 챔피언결정전을 치러야 한다.



지난 시즌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우승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일단 획득한 박지성은 한국 선수로는 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및 우승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박지성이 바르셀로나전을 뚫면 챔피언스리그 4강 출전은 두 번째가 된다. 박지성은 네덜란드 PSV에인트호벤 소속이던 2004-2005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무대를 밟았다.

당시 AC밀란(이탈리아)과 홈 2차전에서 전반 9분 선제골까지 터트리며 3-1 승리를 이끌었지만 1, 2차전 합계에서 원정 다득점에 밀려 결승까지는 오르지 못했다. 지난 시즌에도 맨유가 대회 4강에 오르면서 다시 출전 기회를 맞았다. 하지만 박지성은 부상으로 뛰지 못하고, 맨유도 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전남·포항 막판 대반격 노린다

오늘 AFC 챔피언스리그 4차전

프로축구 K-리그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제철강 형제' 포항 스틸러스와 전남 드래곤즈가 아시아무대에서 막판 대반격에 나선다.

지난 해 K-리그 챔피언 포항은 23일 오후 7시 포항스타디움에서 지난해 중국 슈퍼리그 우승 팀 창춘 야타이와 2008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E조 4차전 홈 경기를 치른다.

이어 오후 9시30분에는 지난해 FA컵 우승팀 전남이 태국 방콕으로 원정을 떠나 춘

부리FC(태국)와 G조 네 번째 경기를 갖는다. 조별리그에서 나란히 1승2패를 거둔 포항, 전남 두 팀은 E조 3위, G조 4위에 각각 처져 있어 이번 4차전은 8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각 조 1위만이 8강에 오를 수 있는 만큼 이번 4차전에서 패배라도 한다면 사실상 8강행이 어려워진다.

조별리그에서 2패 뒤 1승을 거둔 전남은 2연승을 통한 기사회생을 노린다. 전남은 비록 나란히 승점 3을 얻은 멤버론 빅토리(호주)에 골득실 차로 밀려 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춘부리와 3차 원정 경기에서 후반 45분 시몬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기면서 자신감에 차 있다.



진짜 '공중전'?

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CSKA 모스크바와 로코모티브 모스크바의 러시아 풋볼 챔피언십 경기에서 CSKA의 골키퍼 이고르 아킨페프(사진 오른쪽)가 공을 막아내고 있다. 경기는 0-0 무승부로 끝났다. /연합뉴스

보스턴마라톤 여자 2초 차 우승 갈려

21일 열린 보스턴 마라톤 대회 여자부에서 에티오피아 출신의 디레 투네가 42.195km 구간에서 알레브티나 빅티미로바(러시아)와 손에 땀을 쥐는 각축전을 벌인 끝에 불과 2초 차이로 우승을 차지했다.

이제까지 여자 마라톤 기록에서 가장 근소한 차이는 10초였다. 두 선수는 결승점 800m 구간에서 몇 차례 선수가 뒤바뀌는 슛막히는 레이스를 펼쳤으나 마지막 100m 구간을 남겨두고 투네가 간발 앞서면서 그 수세를 몰아 결승점에 먼저 끝냈다.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처음 출전한 투네의 비공식 기록은 2시간25분25초. 남자 부문에서는 케냐 마라톤 군단의 에이스 로버트 체루이요트(29)가 2시간7분46초의 비공식 기록으로 우승했다.



22일 열린 보스턴 마라톤 대회 여자부에서 우승한 에티오피아의 디레 투네(사진 오른쪽)가 2초 차이로 준우승에 머문 알레브티나 빅티미로바와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프로레슬링 챔피언스 내달 5일 서울서 개최

세계 유명 프로레슬러들이 대거 출전하는 '세계프로레슬링 챔피언스 결정전'이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된다.

신한국프로레슬링협회(NKPWA)는 "5월5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중구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등 3개국 프로레슬러 22명이 참가하

는 국제 프로레슬링대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NKPWA는 해비급과 주니어해비급, 라이트해비급 등 3체급 챔피언결정전이 치러지는 이 대회를 통해 과거 인기를 끌었던 한국 프로레슬링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23일(수)

▲메이저리그 <LA다저스 : 신시내티> (08 : 00·Xports)

▲프로농구 챔피언결정전 4차전 <원주 동부 : 서울 삼성>(17 : 10·SBS)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 요코하마> (17 : 45·SBS스포츠)

▲프로야구 <우리 : 기아>(18 : 00·KBSN SPORTS), <SK : 롯데>(18 : 20·Xports), <두산 : 삼성>(21 : 00·SBS스포츠)

24일(목)

▲UEFA챔피언스리그 4강 1차전 <바르셀로나 : 맨체스터 Utd>(03 : 30·MBCESP)

장수운동 침대

기상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를 위해 신체의 건강을 지키는 장수운동 침대를 소개합니다.

시립이	빅토리	빅서리
₩1,490,000	₩1,380,000	₩1,350,000

하이파리생활가구

모디쉬갤러리 통광주점 TEL. 060-252-3001~2

모디쉬갤러리

시립이 빅토리 빅서리

시립이 4인식탁 ₩690,000 (최소현금)

2008 ENE Energy Efficient Award ₩1,990,000

2008 ENE Energy Efficient Award ₩1,990,000

2008 ENE Energy Efficient Award ₩1,990,000

2008 ENE Energy Efficient Award ₩1,990,000

모디쉬갤러리 통광주점 TEL. 060-252-3001~2